

음악과 춤에 담긴 밤의 낭만... 파리 예술의 집합소

세계의 문화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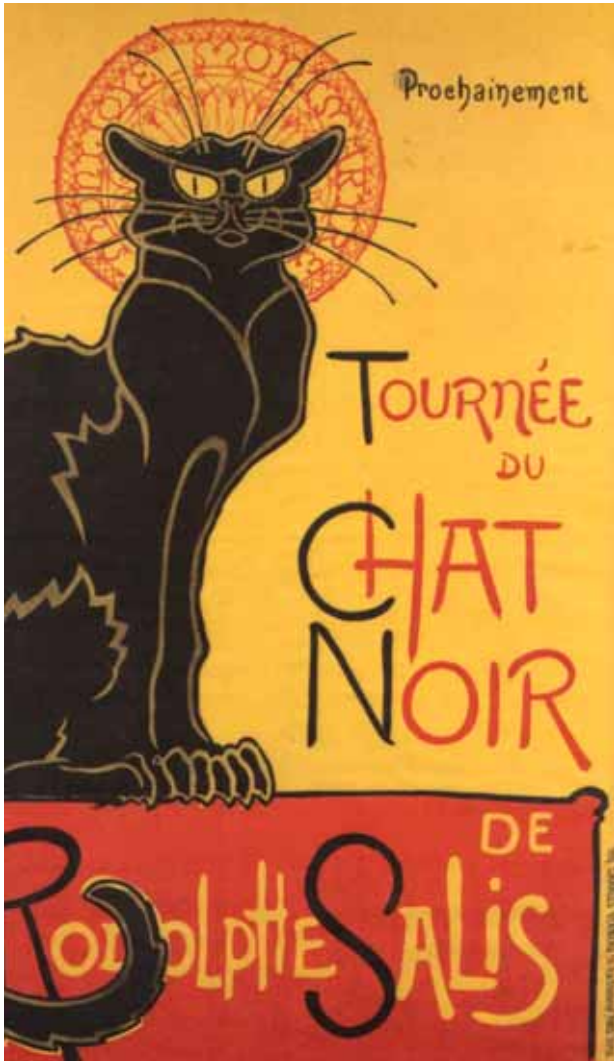
파리 오디세이

<17>

파리와 카바레



화가 툴루즈-로트렉의 '몰랭 루즈의 무도회' 1890년 작품.



몽마르트의 카바레 '샤 누아'의 포스터. 카바레보다 포스터가 더 유명해 시내 관광상품점에서 이 그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889년 몽마르트 구역에 문을 연 몰랭 루즈는 파리의 상징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파리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 상점리제에는 단체관광객을 태운 버스들이 무시로 정차하고 또 떠난다. 해질녘에 샹젤리제로 향하는 버스는 리도쇼를 보러 온 관광객을 태웠을 확률이 높다. 리도쇼는 몰랭 루즈와 함께 파리 관광에서 빠지지 않는 야간 코스 중 하나다. 현란한 의상을 입은 무희들의 신나는 강강춤은 파리의 상징이 된지 오래다.

강강춤 등 공연을 하는 곳을 카바레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단어 '카바레'와 느낌은 사뭇 다르다. 한껏 멋을 부린 의상을 차려 입고 한 잔에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는 샴페인과 비싼 식사 메뉴를 즐기며 벨 에포크 시대의 향수를 만끽하는 듯한 파리지앵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카바레가 처음부터 고급스런 곳은 아니었다.

카바레가 파리에 첫 선을 보인 것은 19세기 후반이지만 그 전신은 혁명기인 18세기 후반의 카페 문화에서 비롯됐다. 심각한 표정을 한 부르주아들이 앉아 혁명에 대해 토론하며 피대를 세웠던 곳이 낮의 카페였다면, 밤에는 일상에 지친 이들이 모여 술 마시고 춤 추고 노래하느라 피대를 세웠다. 고요한 무희들이 공연을 펼치는 콘서트 카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19세기 초반 파리의 유흥가로 꼽히던 팔레 루와알의 아케이드가 특히 콘서트 카페 밀집지역이었다.

파리 최초의 카바레는 1802년 센 강 좌안의 라틴 구역에 문을 연 '파라디 라탱'이다. 대학과 가까운 동네여서 학생은 물론 예술가, 정치가, 작가, 기자, 노동자, 상인 등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 고객층 명단에는 발자크나 알렉상드르 뒤마, 메리메 등도 있었다. 식사와 술을 마시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앞장서서 앉아서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보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춤을 추는 스트레스 해소 공간이었다.

1870년 프러시아 전쟁 때 화재로 문을 닫았다가 1889년 재개장했다. 파라디 라탱의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재건축에 나선 것은 에펠탑을 세운 귀스타브 에펠이었다. 만국박람회에 맞춰 에펠탑에 세워졌던 그 해 파라디 라탱이 재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벨 에포크를 향해 달리던 파리지앵들에게 카바레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배설 공간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같은 해 센 강 우안에는 '몰랭 루즈'라는 새 카바레가 등장했다. 예술가들의 동네로 알려진 몽마르트에는 이미 '샤 누아'라는 카바레가 성업 중이었지만 퇴폐적인 곳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얼마 안가 1897년 샤 누아는 문을 닫았는데, 이곳에서는 창녀들이 공공연하게 드나들며 남성들에게 추파를 던졌고, 아예 창녀를 구하기 위해

1802년 첫 선...계층 불문 공연 보고 술 즐겨

1870년 몰랭 루즈, 강강춤으로 밤문화 평정

에디트 피아프·이브 몽땅 등 상송가수 탄생

관광객들 쇼 보며 '벨 에포크 시대' 향수 만끽

오는 손님들도 많았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댄스 홀과 무대, 사방에 놓인 거울 등 몰랭 루즈는 개장과 함께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몰랭 루즈는 강강춤이 처음 선을 보인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강강(cancan)춤은 오리(canard)가 뛰는 모습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래서 오리가 우는 소리(coin)를 따 꾸앙꾸앙(coincoin)춤이라고도 불린다.

20세기 중반까지 밤의 파리를 평정한 몰랭 루즈의 시대가 오고 있었다. 당시 몽마르트 언덕에는 아직도 대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목가적인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다. 곡식이나 옥수수, 석고 등을 쌓는 풍차 30여 개가 언덕을 중심으로 퍼져 있었다. 곡식이 아니라 사람을 섞는 '빨간 풍차'는 이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풍차였을 것이다. 툴루즈-로트렉, 르누아르, 아폴리네르, 피카소, 프루스트, 모딜리아니, 막스 야콥 등. 빨간 풍차를 보고 몽마르트로 모여든 이들의 면면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이중에서도 최고의 몰랭 루즈 추종자는 단연 난장이 화가 툴루즈-로트렉이다. 거의 매일 저녁 나타나 지정석을 잡아 놓고 압센트 한 잔을 주문했던 툴루즈-로트렉은 몰랭 루즈 안의 풍경을 주제로 수많은 그림을 남겼다. 나중에는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관화로 제작된 툴루즈-로트렉의 몰랭 루즈 포스터들은 국립 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몰랭 루즈가 밤 문화를 선도하면서 인기가 좋은 가수나 무용수 등 이른바 스타들이 탄생했는데, 이들은 툴루즈-로트렉의 회화에도 등장한다. 1891년 툴루즈-로트렉이 처음으로 제작했

던 포스터도 당대 최고의 인기 무용수 라 굴뤼의 공연을 위한 것이었다. 몰랭 루즈가 전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것은 툴루즈-로트렉의 붓이 있어 가능했다. 댄스 홀 구조였던 몰랭 루즈 내부는 1902년 극장식으로 변경된다.

파리의 카바레가 낳은 또 하나의 스타는 '상송'과 동음이의어쯤으로 불리는 에디트 피아프다. 파리 북동쪽 빈민가인 벨빌에서 태어났다. 벨빌 가 72번지에는 그의 생가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건물 외부에 붙어 있다. 곡에서 아버지와 가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피아프는 천성 '판파라'였다. 피아프의 외할머니도 몰랭 루즈에서 춤을 추던 무희였다. 부모를 따라 거리를 떠돌며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부르던 피아프의 재능을 알아본 것은 샹젤리제에서 카바레를 운영하던 이였다. 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점차 파리지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독일의 파리 점령기였던 1944년 봄 피아프는 처음으로 몰랭 루즈의 무대에 올랐다. 피아프는 이 곳에서 같은 날 무대에 오른 신인 이브 몽땅에게 첫 눈에 반했다. 이미 어느 정도 명성을 갖고 있던 피아프는 이브 몽땅에게 자신의 연에게 인맥을 소개해주는 등 후원자 겸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들의 사랑이 오래가지 않았지만 이브 몽땅을 그리며 그녀가 직접 가사를 쓴 노래, '장밋빛 인생(La vie en rose)'은 불후의 명곡으로 지금까지도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21세기 파리의 대형 카바레는 고상하게 앉아 쇼를 구경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는 갖기 어렵게 됐다. 관객의 대다수가 버스에서 내려 줄 맞춰 입장하는 관광객이라는 점만 봐도 그렇다. 사교를 위한다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카페나 바, 또는 나이트 클럽으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 미셸 골목 어딘가에는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를 하는 무명가수가 있고 처음 만난 남녀가 손을 잡고 왈츠를 추는, 어수선하지만 낭만적인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카바레들이 지금도 파리지앵을 유혹하고 있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파리=정성필 객원기자
sphilejong@gmail.com



3만원으로 떠나는 제주도여행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서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3만원으로 떠나세요.

광주↔목포 서틀버스 + 씨스타크루즈호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 1일차 도두봉 트래킹, 용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 2일차 오설록,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불) 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 3일차 선녀와나무꾼, (현지직불) 몽골리안마상쇼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서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 호텔(다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 <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팁,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닷컴 www.jeube.com 1644-2261